

	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
		배포일시	2019. 6. 14(금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광역시설 운영과	담당자	•과장 이우제, 사무관 운영식, 주무관 장승룡 •☎ (044) 201-5106, 5105	
보도일시		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대광위, 수도권 지자체 의견 본격수렴 시작

- 8월 말 발표예정인 광역교통망 기본구상 마련 절차 추진 -

-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위원장: 최기주)는 6월 12일(수) 경기북부청사에서 수도권 동북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‘제1차 지자체 간담회’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 - 이는 지난 5월 말, “2개월간 8차례의 권역별 간담회를 거쳐 수도권 신도시를 포함한 ‘권역별 광역교통망 기본구상’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임”을 밝힌 것과 관련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이하 “대광위”)의 첫번째 행보다.
- 이번 간담회에는 남양주시장, 양주부시장 외에도 서울시, 경기도, LH 및 한국교통연구원 등 관련 기관에서 약 30명 이상이 참석했다.
 - 경기도 본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(GTX) B노선, C노선 조속 추진 등, 남양주시는 진접선과 별내선 단절구간 연결 등, 그리고 양주시는 도봉산-옥정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등을 건의하였다.

- 약 2시간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각 기관별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, 대광위는 지자체 건의사항에 대하여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 등과 함께 심도있게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.
- 대광위는 이번 수도권 동북권에 이어 오늘 동남권, 서남권(6.19) 및 서북권(6.25)도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, 오는 7월에는 부산·울산권, 대구권, 광주권 및 대전권역 등의 지역 간담회를 이어서 개최하여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.

<수도권 4대 권역 기초지자체 참석대상 >

◇ (동북) 양주, 남양주 / (동남) 서울송파, 성남, 하남, 수원, 용인
(서남) 인천서구, 인천계양구, 화성, 평택, 부천 / (서북) 김포, 파주, 고양

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운영과 운영식 사무관(☎ 044-201-510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-	--